

## 구조적 외환포지션 설명

- 해외 자산과 부채를 매치하여 환 포지션을 모두 제거하면(Square position)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변동이나 순오픈 포지션으로 산출하는 시장리스크 자본요구량의 부담은 덜 수 있으나, 외화자산의 자국 통화환산액이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율이 변동 문제 발생
  - 환율 변동에 따른 비율간의 상충 문제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구조적 포지션을 도입하여 구조적 포지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리스크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
- ※ (정의) 구조적 외환 포지션은 외환 거래가 아닌 은행의 구조적 요인(본질적 운영 요소)에 비롯된 외환 포지션으로 해외 자회사 투자 금액이 해당

구분		Case 1		Case 2			
				구조적 외환 포지션 미인정		구조적 외환 포지션 인정	
변경전	재무 제표	자산	부채 / 자본	자산	부채 / 자본	자산	부채 / 자본
		외화자산 : 400	외화부채 : 400	외화자산 : 400	외화부채 : 360	외화자산 : 400	외화부채 : 360
		국내자산 : 200	국내부채 : 140	국내자산 : 200	국내부채 : 180	국내자산 : 200	국내부채 : 180
		자기자본 : 60		자기자본 : 60		자기자본 : 60	
	합 : 600	합 : 600	합 : 600	합 : 600	합 : 600	합 : 600	합 : 600
							오픈포지션 : 40
	자본 비율	$60 \div (400 + 200) = 10\%$		$60 \div (400 + 200 + 3.2) = 9.95\%$		$60 \div (400 + 200) = 10\%$	
변경후 (환율 15% 상승)	재무 제표	자산	부채 / 자본	자산	부채 / 자본	자산	부채 / 자본
		외화자산 : 460	외화부채 : 460	외화자산 : 460	외화부채 : 414	외화자산 : 460	외화부채 : 414
		국내자산 : 200	국내부채 : 140	국내자산 : 200	국내부채 : 180	국내자산 : 200	국내부채 : 180
		자기자본 : 60		자기자본 : 66		자기자본 : 66	
	합 : 600	합 : 600	합 : 600	합 : 600	합 : 600	합 : 600	합 : 600
							오픈포지션 : 46
	자본 비율	$60 \div (460 + 200) = 9.09\%$		$66 \div (460 + 200 + 3.68) = 9.94\%$		$66 \div (460 + 200) = 10\%$	
결론	<p>- Case 1 : 시장리스크 관리를 위해 Open Position 미발생(시장리스크 존재하지 않음) ⇒ 환율 변경시 자본비율 영향 받음</p> <p>- Case 2 : 환율 변동에 따른 자본비율 영향 최소화를 위해 Open Position 발생(시장리스크 존재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구조적 외환 포지션 미인정 : 시장리스크 발생으로 자본비율 하락, 환율 변동에 따른 자본비율 영향 미미</li> <li>· 구조적 외환 포지션 인정 : 시장리스크 발생하지 않음, 환율 변동에 따른 자본비율 영향 없음</li> </ul> <p>⇒ 구조적 포지션 인정으로 자본비율 및 시장리스크 관리 모두 가능</p> <p>▶ 구조적 외환 포지션 도입하여 자본비율 및 시장리스크 모두 관리</p>						

### ※ 구조적 외환 포지션 인정 요건

- ① 환율 변동에 따른 BIS 비율의 불리한 변화 중의 일부 또는 전부를 헤지하기 위한 포지션
- ② 제외되는 포지션은 투자금액의 최대값으로 제한
- ③ 포지션의 제외는 최소 6개월간 유지되어야 하며, 자산 또는 기타항목의 보유기간동안 유지되는 헤지 포지션의 제외가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함
- ④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 및 문서화가 필요
- ⑤ 비트레이딩 계정으로 관리 될 것